Monthly Bultube

아버지가 보실만한 불교 유튜브 없나요? ○○지역에 가는데 인근 사찰을 소개한 유튜브 영상 없을까요?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많은 이들이 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 특히 불교와 관련된 정보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 얻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람하는 유튜브 영상 속에서 참신한 불교 유튜브 콘텐츠를 찾아 키워드별로 소개해본다. 사찰에 가기 힘든 불자들이라면 스마트폰으로라도 부처님 세상에 한걸음 다가가 보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애 니 멀

KBS동물티비
주인과 종교가 다른 강아지가 있다?!
youtu.be/dCyG5z-Jgcs

SCAN ME

최근 주요 방송사들은 자사의 방송 콘텐츠를 재방영하는 취지에서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 하고 있다. 다양한 불교 관련 콘텐츠도 이에 따라 올라오곤 한다.

2010년 7월 방영 당시 굉장한 화제를 모았던 KBS 생생정보통의 '주인과 종교가 다른 강아지, 개는 불교, 주인은 기독교' 영상이 올해 6월 8일 유튜브로 다시 업로드 됐다. 이미 조회 수 130만회를 넘길 정도로 인기다.

신통방통 천재견으로 불리는 진도 강아지 신덕이가 일요일 교회에 가는 주인과 헤어져 인근 사찰에서 법회를 본다. 입으로 목탁을 치고, 스님 옆에서 절을 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주지 법일 스님은 "전생에 불제자가 아닌가 싶다"라며 웃는다. 여기에 드라마를 보고 따라하는 모습이나 주인의 말을 듣고 물건을 가져다주는 모습 등에 많은 댓글이 달렸다.

좋아요 2.1만회를 받은 이 영상 댓글에는 "법당에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다니 진짜 놀랍다", "진짜 똑똑하다. 종교까지 갖고 있는 강아지는 처음 본다", "스님의 절에 맞춰서 목탁치는건 사람 못지 않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추 모

BTN불교TV
'영원한 국민 MC 송해, 아직도 못다 한 이야기'
youtu.be/moanMV2iJH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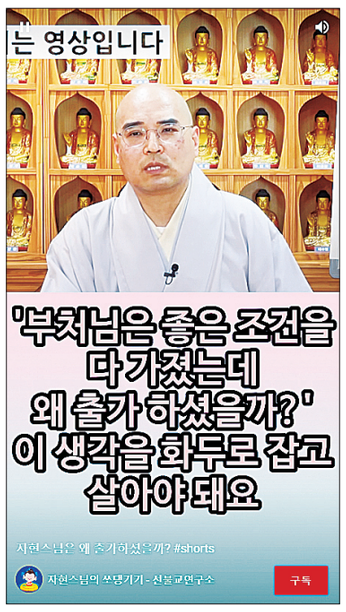
SCAN ME

6월에는 불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소식도 전해졌다. 바로 KBS '전국노래자랑' 최고령 MC이자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방송인 송해 씨가 6월 8일 향년 95세 일기로 별세한 것이다.

평소 "불교방송 개국 준비 때 전국 사찰과 암자를 다 돌았다" "돌과 소나무 어디에도 부처님이 계시다는 마음으로 전국을 순회했다" "효도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삶이 불교 가르침의 화두이면서 모든 대중가요의 가사이고 노래"라고 밝힌 그의 별세에 불자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이러한 마음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됐다. BTN불교TV는 6월 8일 故송해 추모 특집으로 '영원한 국민 MC 송해, 아직도 못다 한 이야기' 영상을 게재했다.

불교TV 측은 생전 불자 코미디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던 송해 씨의 못다했던 이야기를 풀어낸다고 소개했다. 영상에서는 땡볕에서 사회를 본 일화부터 불자로서 매 순간에 임한 자세 등이 얘기가 나왔다. 사회자 이상벽 씨는 "청년시절부터 불자연예인으로써 포교에 앞장섰던 송해 선생님"이라고 소개한다.

댓글에는 "송해거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고마웠습니다. 부디 극락왕생 하셔서 그 곳에서 음성공양 많이 하시고 부처님 세상에 편안하소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니 34년을 한방송에서 오래오래 하시지요."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전국민 희노애락의 삶을 함께한 송해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등이 달렸다.

음 악 회

BBS불교방송
영탁이 영탁했다
youtu.be/xltrqicr9BE

SCAN ME

함성과 박수 소리에 전율이 난다. '산사음악회에서도 이렇게 환호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하는 영상이 있다. 바로 5월 28일 열린 화계사 이주중건 500주년 기념 산사음악회에서의 트로트가수 영탁의 공연이다.

화계사에서 이주중건 500주년으로 마련한 기념주간에는 화계사 조실 설정 스님을 비롯해 회주 성광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이 법사로 나서 법회를 열었고, BBS싱싱라디오를 비롯해 토크쇼 '세계는 한송이의 꽃', 불화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하지만 이중 가장 일반인들의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은 단연 산사음악회였다. 불자방송인 박재민의 사회로 열린 음악회에는 영탁, 박현빈, 바비킴, 최예림 등이 나서 신명나는 무대를 펼쳤다.

불자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등장에 무대는 사찰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열기로 넘쳐났다. 특히 불자인 국민트로트가수 영탁이 1만명이 모인 가운데 펼친 '누나가 딱이야' '막걸리 한잔' '찐이야' 등 메들리가 압권이었다. 열정 넘치는 무대에 화계사 전각 난간에도 팬들이 올라가 환호를 보냈다.

BBS불교방송은 유튜브 채널에 5월 30일 클립영상으로 당시 현장을 소개했다. 조회수는 10만회, 좋아요는 7100회를 기록했다. 또 다른 클립 영상인 '엔딩요정 나가실게요~ 킹탁' 은 6.5만회 조회를 기록했다.

637개 댓글 중에는 "영탁이 영탁했다", "화계사가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무대가 될수 있다니" "만명이 넘는 팬들 대박이다. 화계사에 지진난줄 알았다고" "서울에 가면 화계사 한번 가보고 싶다. 산사음악회도 이런 재미가 있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뇌 과 학

유나방송
김성철 교수의 마음은 어디서 나왔을까?
youtu.be/t88Evl8ow-M

SCAN ME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찰나의 흐름 속에 일어나는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수행과정에서도 한번쯤 생각하게 되는 근본적인 의문일 것이다.

정목 스님의 유나방송이 진행하는 '유나아카데미' 의 '불교와 뇌과학' 강연은 과학에서 '마음' 의 정체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불교에 귀의해 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김성철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불교학부 교수는 뇌과학과 불교의 접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김성철 교수는 이번 영상에서 '불교와 뇌과학으로 풀어본 마음의 정체' 를 통해 서구에서 말하는 분별적 생각과 반야지혜의 차이점을 밝히고 우리의 각 기관의 인식, 특히 뉴런다발인 뇌의 작용과 주관과 객관의 발생여부 등을 고찰한다.

어려운 뇌과학에 대하여 불교의 입장에서 쉽게 풀어내는 모습에 '좋아요' 는 1000회를 받았으며, 댓글에는 좋은 평가가 뒤따랐다.

댓글에는 "보리도 차제론 중관학 등 강의를 자꾸 찾아들을 수 밖에 없다. 쉽게 요약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명징한 설명이 있을까 싶다" 등 댓글이 달렸다.

강 연

자현 스님의 쏘댕기기 선불교연구소
자현 스님은 왜 출가했을까?
youtube.com/shorts/OuDT1wbf8rQ?feature=share

SCAN ME

어느 분야에서나 박학다식으로 유명한 이들이 있다. 자현 스님은 박사 학위만 십수개에 달할 정도로 불교계서 대표적인 전방위 불교지식인으로 통하는 이다. 강연으로 유명한 자현 스님에게 그 핵심을 추려내 빠르게 전하는 유튜브 쇼츠만큼 좋은 전달 매체가 있을까 싶다.

이중 6월에 올린 쇼츠 영상 '자현 스님은 왜 출가했을까?' 는 조회수 10만회를 기록했다. 스님은 여기서 "부처님은 좋은 조건을 다 가졌는데 왜 출가했을까란 생각을 화두로 잡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답은 '자유' 였다.

평소에도 이른바 '쿨' 한 대답을 하는 스님은 영상을 통해 파격적인 얘기도 했다.

스님은 "자유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출가를 결심했다"며 "출가는 완성이 아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언제든지 속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고 했다. 바로 이어 스님은 "이게 자유롭지 못하고 나를 방해한다면"이라고 말했다.

영상에서 스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출가동기들 중 나만 남았다고도 했다. 끝으로 스님은 "여러분들도 '부처님은 왜 좋은 조건을 다 버리고 출가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내가 과연 제일 좋은 행복조건을 끊임없이 찾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영상을 마무리 했다.

댓글에는 "솔직 담백하다" "속이 후련하다" "자유의지 때문에 출가한다는 점에서 공감" 등이 달렸다.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 봉

종도모집

KBB한국불교방송주식회사, KBB한국불교방송신문, 월간시사뉴스, KBB한국불교방송자문위원회, KBB한국불교방송불자총연합천불회

사)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본산
총무원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 문경백봉사 전화 1577-1016, 054)571-6973,1030(협의회) / 팩스 054)571-7498
방송국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 전화 1670-2010